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samsung.com

mk.co.kr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HMM, 중소선박 건조 中에 맡긴다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국내가 아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했다.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관련기사 A3면**

조선업체들은 HMM의 이번 발주가 '고사 상태'에 빠진 국내 중소형 조선업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14일 세종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19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와 3000TEU 규모 소형 선박 총 10여 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잠정 결정했

한국보다 제조비 20% 저렴해... 10여 척 발주 결정
'마스카' 내건 K조선... 중소조선소 생태계는 '고사'

다. 해당 선박들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특세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HMM은 주로 아시아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향하는 원양 항로 노선에 집중해왔으나 지난 7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컨테이너선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에 발주한 소형 선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HMM의 소형 선박 입찰에는 국내 조선사들도 참여했지만 HMM은 가

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수한 중국 조선소를 발주처로 잠정 결정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하는 중소형 선박은 국내 조선소와 비교할 때 가격이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지가·원자재 가격 모두 국내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HMM 관계자는 소형 선박 입찰 결과와 관련해 "선박 가격이나 투입 시점, 중고·신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을 규제하고 있으나 4000TEU 이하 소형 선박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피터 노선(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주요 허브 항구와 중소 규모 항구를 연결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항로)에서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목 부경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형 3사를 제외한 국내 중소형 조선업은 현재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며 "중소형 조선업은 국내 전체 조선업 생태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구금사태 깊은 유감” 美정부 첫 입장표명

방한 랜도 미국무부 장관
“한미관계 강화 전기로 활용”



동기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당국자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나아가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A4·25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할

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협의의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 차관은 랜도 부장관에게 미국 측은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사태 초동 대응을 즉각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이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균형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 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안했다. 김상준 기자



訪美 김정은 '빈손 귀국'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에 현금 출자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상을 마친 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시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A4면** 연합뉴스

李정부 원전정책 '개점휴업'

'신규원전 부지' 첫발도 못떼
고준위방폐장 논의도 표류
李정부 곳곳서 부정적 기류

전 용지 선정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신규 원전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공모와 평가·선정, 통보, 예정구역 지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 공모 절차도 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자력 발전소 용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대형원전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연이어 감지되면서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국내 원전 현안들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A5면**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교통정리가 될 예정이었던 신규 원

전 용지 선정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신규 원전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공모와 평가·선정, 통보, 예정구역 지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 공모 절차도 개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직후 신규 대형원전 2기(2.8GW)에 대한 용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반년째 일정이 뒤로 밀렸다.

고준위 방폐장 역시 올해 2월 입법 추진 9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용지 선정 등 행정 절차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준호 기자

韓,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

3500억弗 출자 美압박에
한미 당국간 협의 진행중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청했다. 14일 한미 재정당국 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펀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대미 투자펀드 중 상당수가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A4면**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면 외환시장이 교란되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왑 없이 미국 요구대로 달러를 조달하면 원화값은 몇백 원이 아니

라 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스왑을 맺으면 원화를 발행한 후 달러로 교환해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더라도 원·달러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이 부족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스왑 요청과 관련해 "상식적 수준에서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이는 측면도 있다. 오수현 기자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지법행정 검사장을 끝으로 26년간 계직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B&H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수원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대검공공수사부장(검사장)
- 대검수사정책보좌관, 원주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공용·기법),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부동산 경제)
- 대검공안2과장(선거), 공안3과장(노동·산업재해)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공공형사와 검사
- 서울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성남지청, 충주지청 검사
- 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법학과, 현대고(서울)

BH 대표변호사 김유철 올림

업무개시 : 2025. 9. 15. (월) | 대표전화 : 02-6952-4700
업무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0, 10층(케이타워 서초)

알립니다

매일경제 구독자에게 감사선물 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매일경제가 푸짐한 경품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매일경제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선정한 명품 경제신문 1위, 대학생 선호 경제지 1위, 직

장 구독률 1위로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이 같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A2면에 계속**

고래사어묵
SINCE 1963
대한민국 1등 프리미엄 어묵

A++등급 알래스카산 명태연육

無 밀가루 방부제

특허기술 흡입식 탈유기 8개 특허

소중한분에게 프리미엄을 선물하세요

3호 40,000원 | 5호 60,000원 | 7호 80,000원 | VIP 100,000원

GORAESA PREMIUM GIFT SET | 단체주문시 할/인/혜/택/ | 대표전화 1544-7902 | 홈페이지 www.goraesa.com